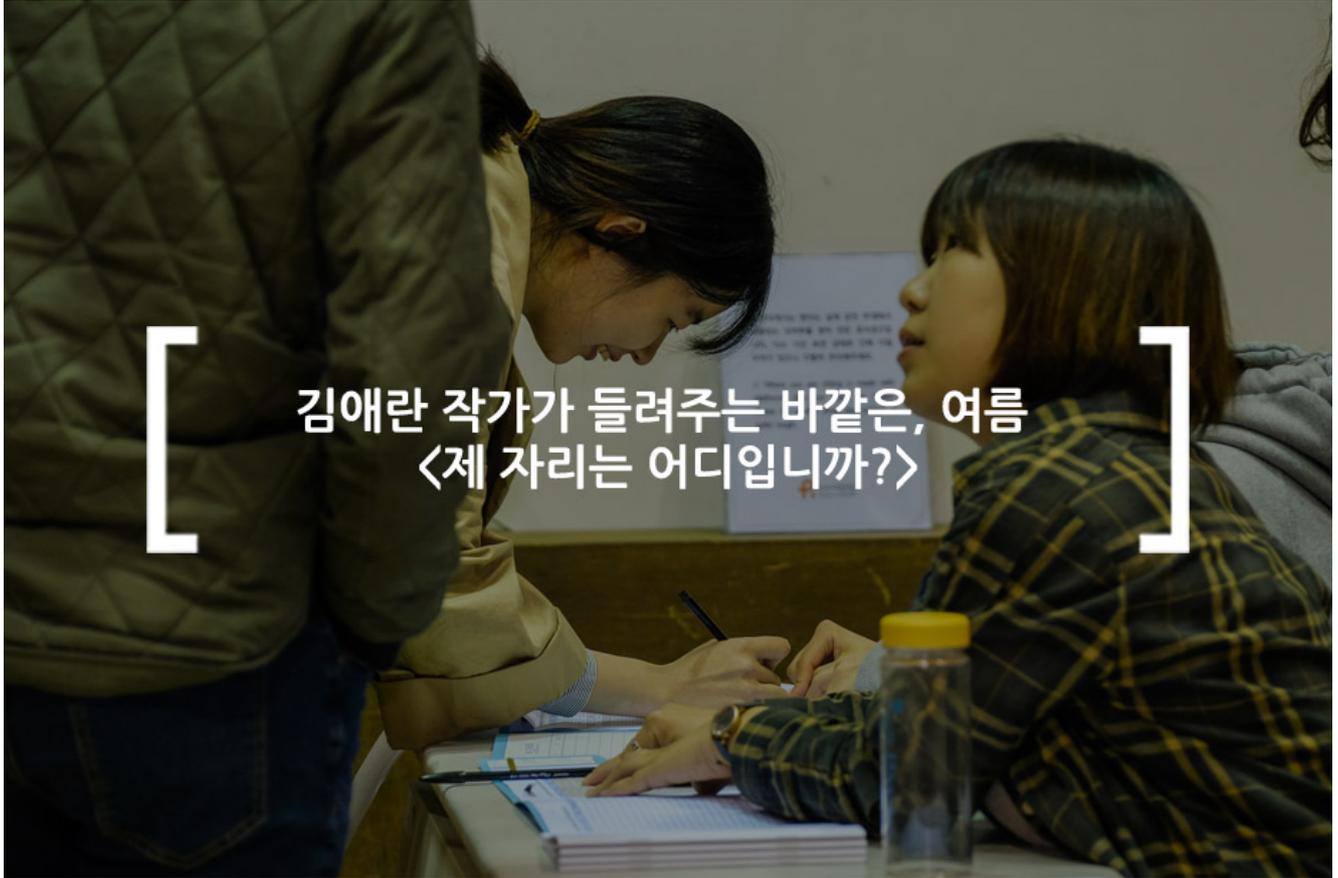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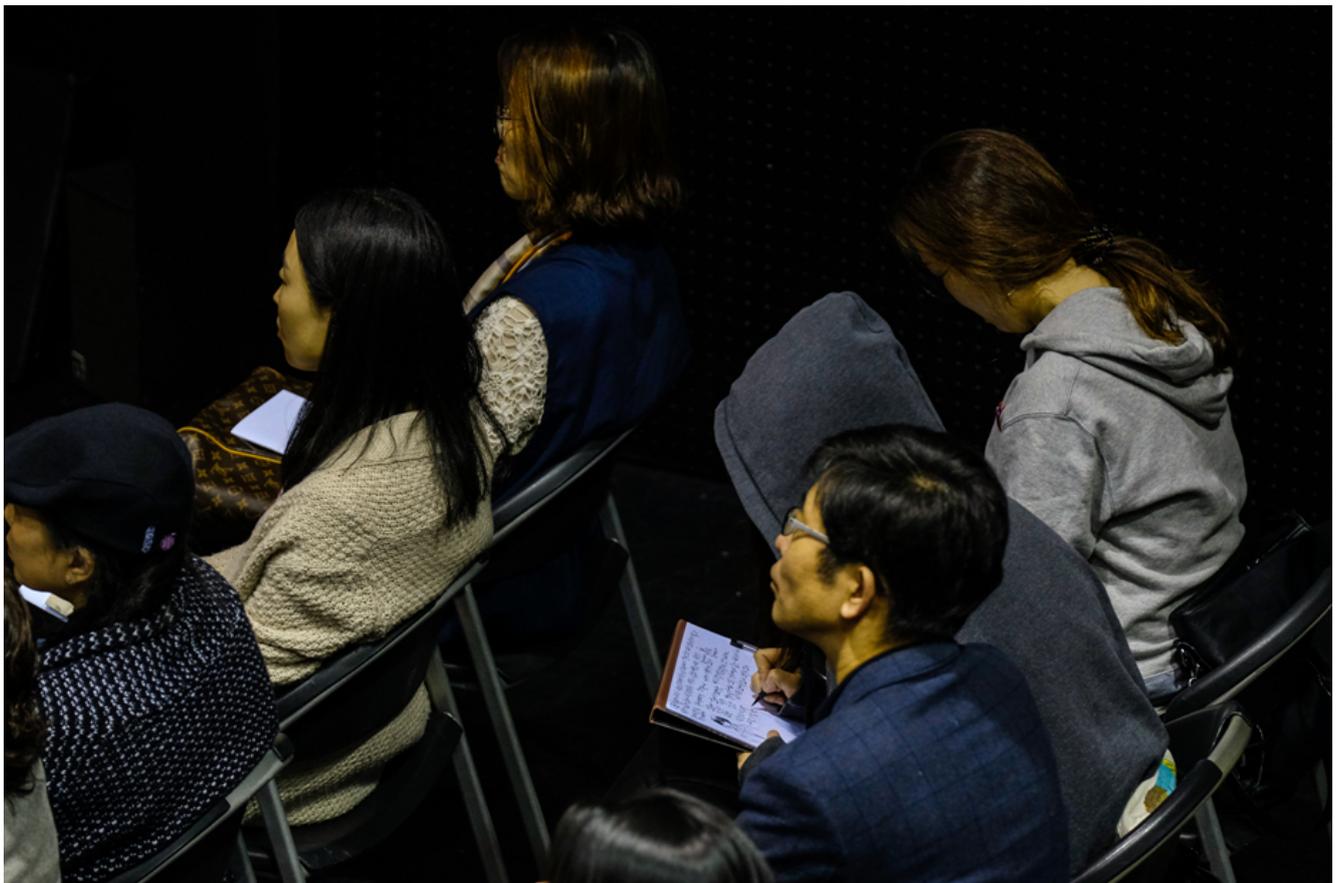
[ 김애란 작가가 들려주는 바깥은, 여름  
<제 자리는 어디입니까?> ]













### <성탄특선 2006 여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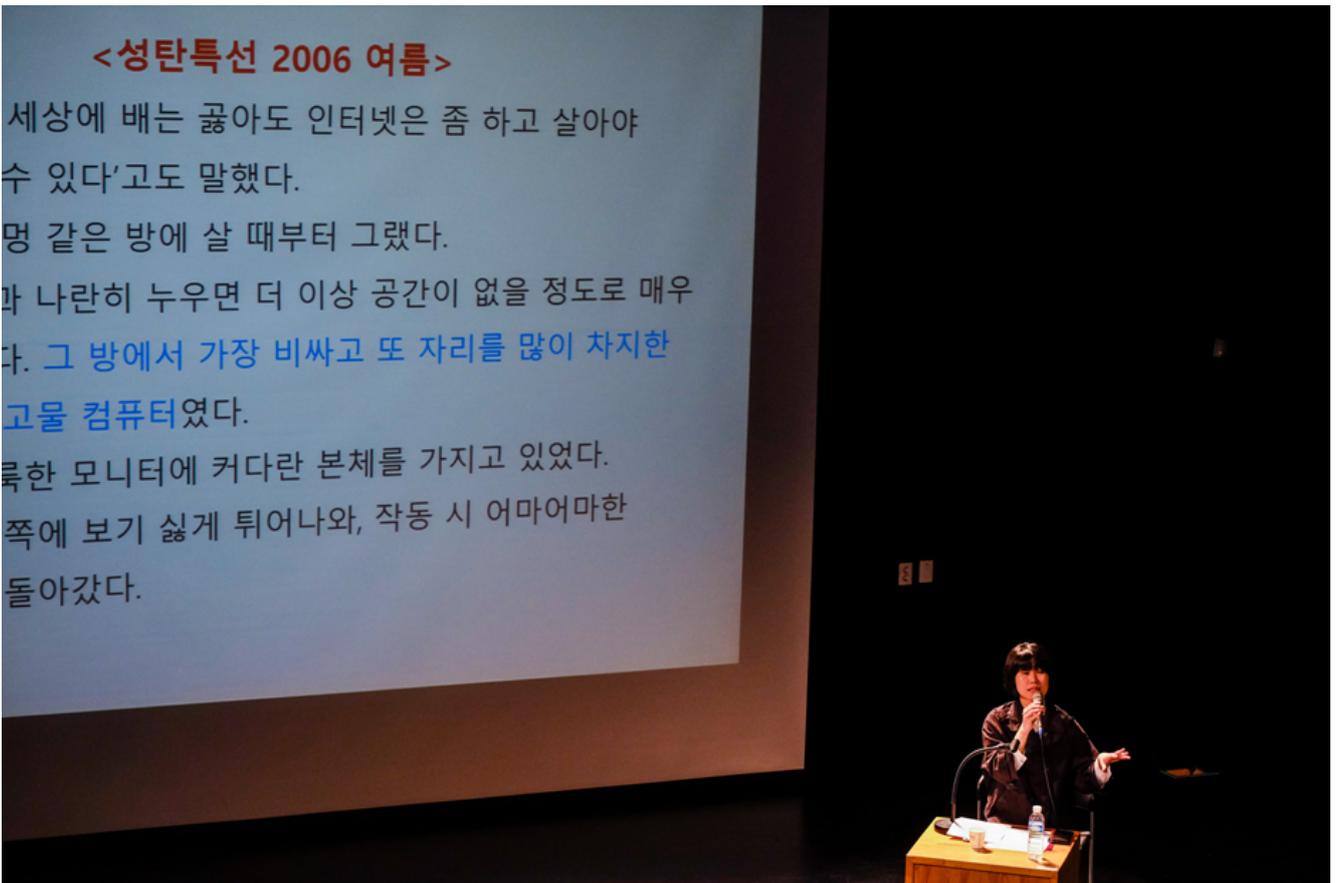
세상에 배는 굶아도 인터넷은 좀 하고 살아야  
수 있다'고도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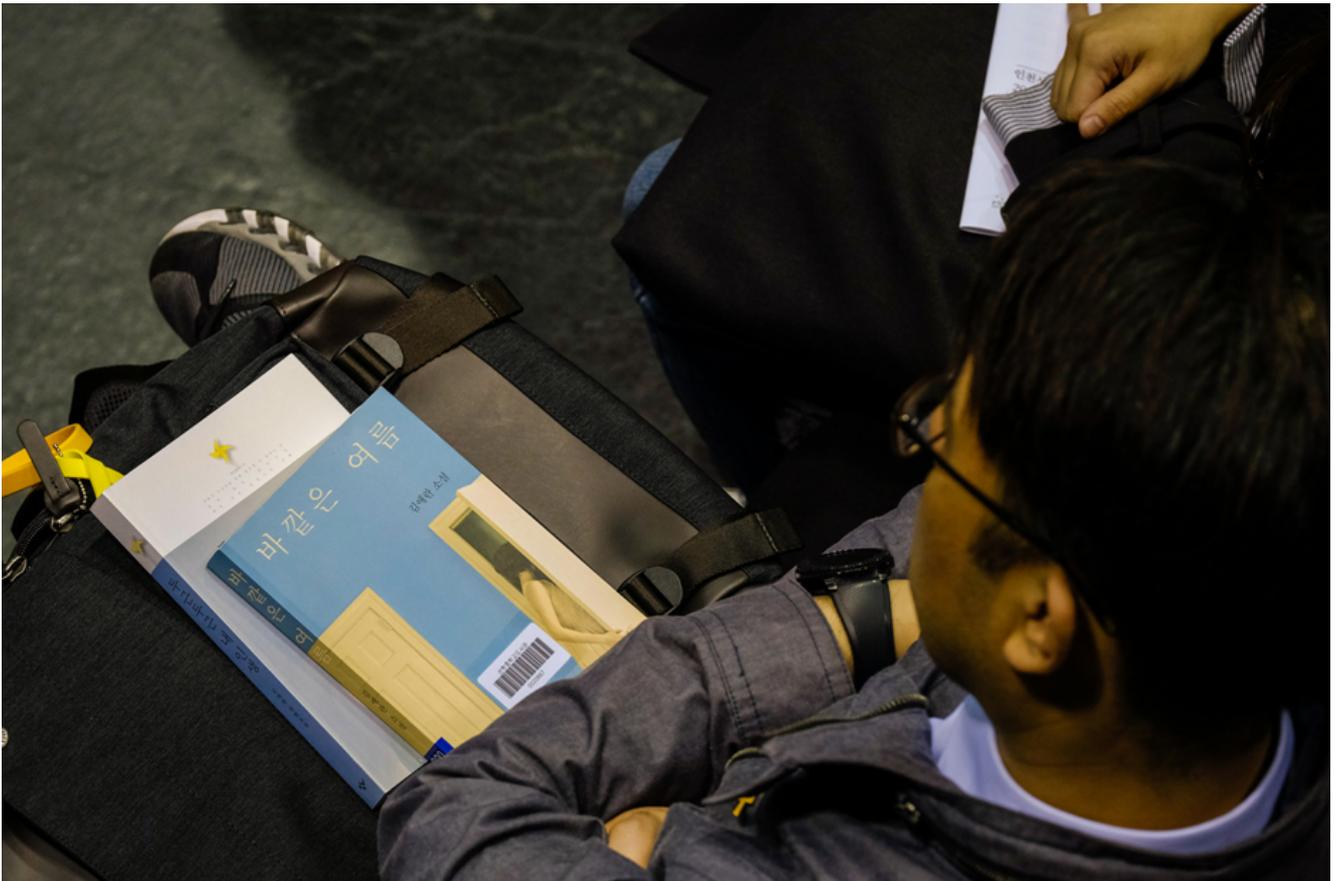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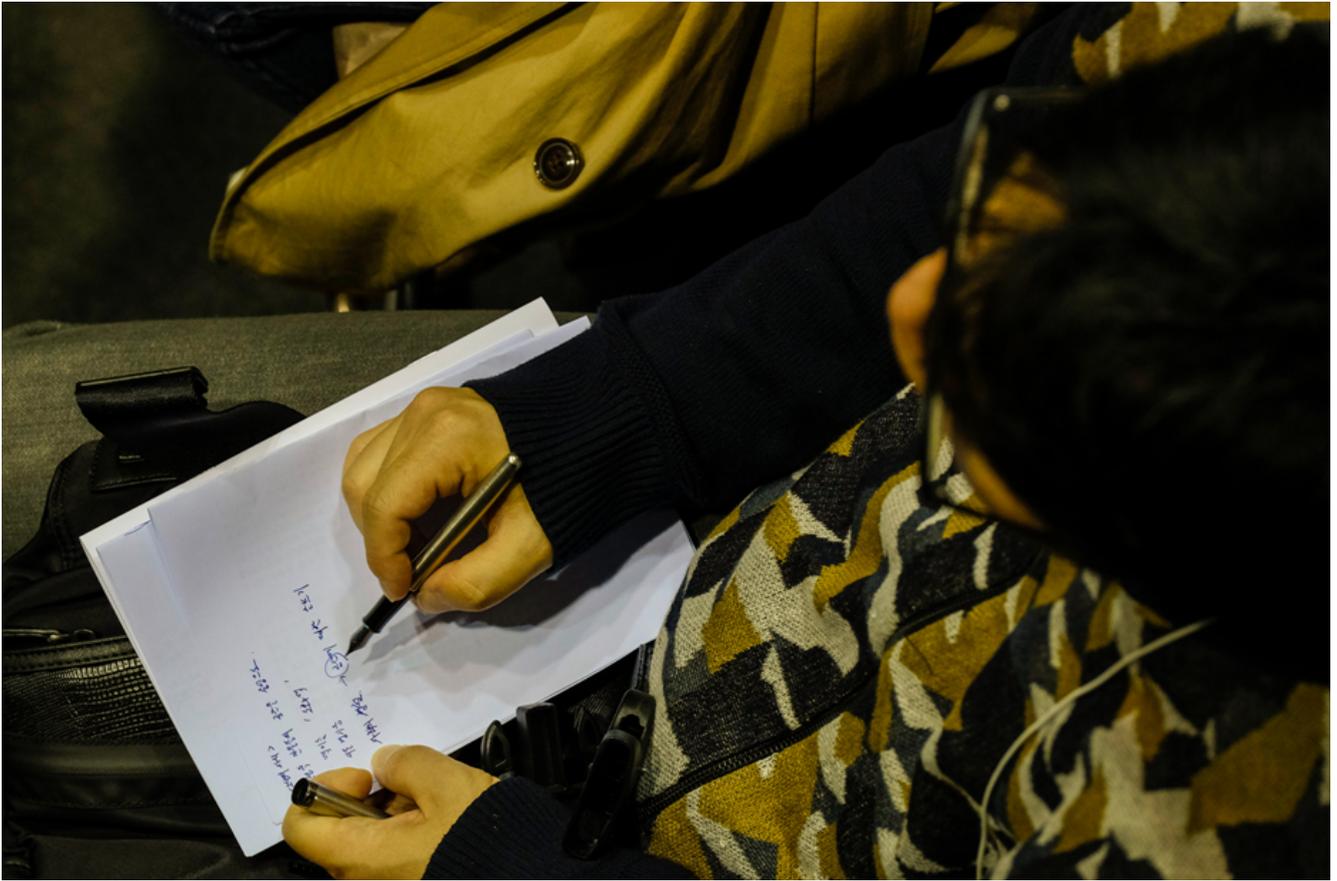
명 같은 방에 살 때부터 그랬다.

과 나란히 누우면 더 이상 공간이 없을 정도로 매우  
다. 그 방에서 가장 비싸고 또 자리를 많이 차지한  
고물 컴퓨터였다.

특한 모니터에 커다란 본체를 가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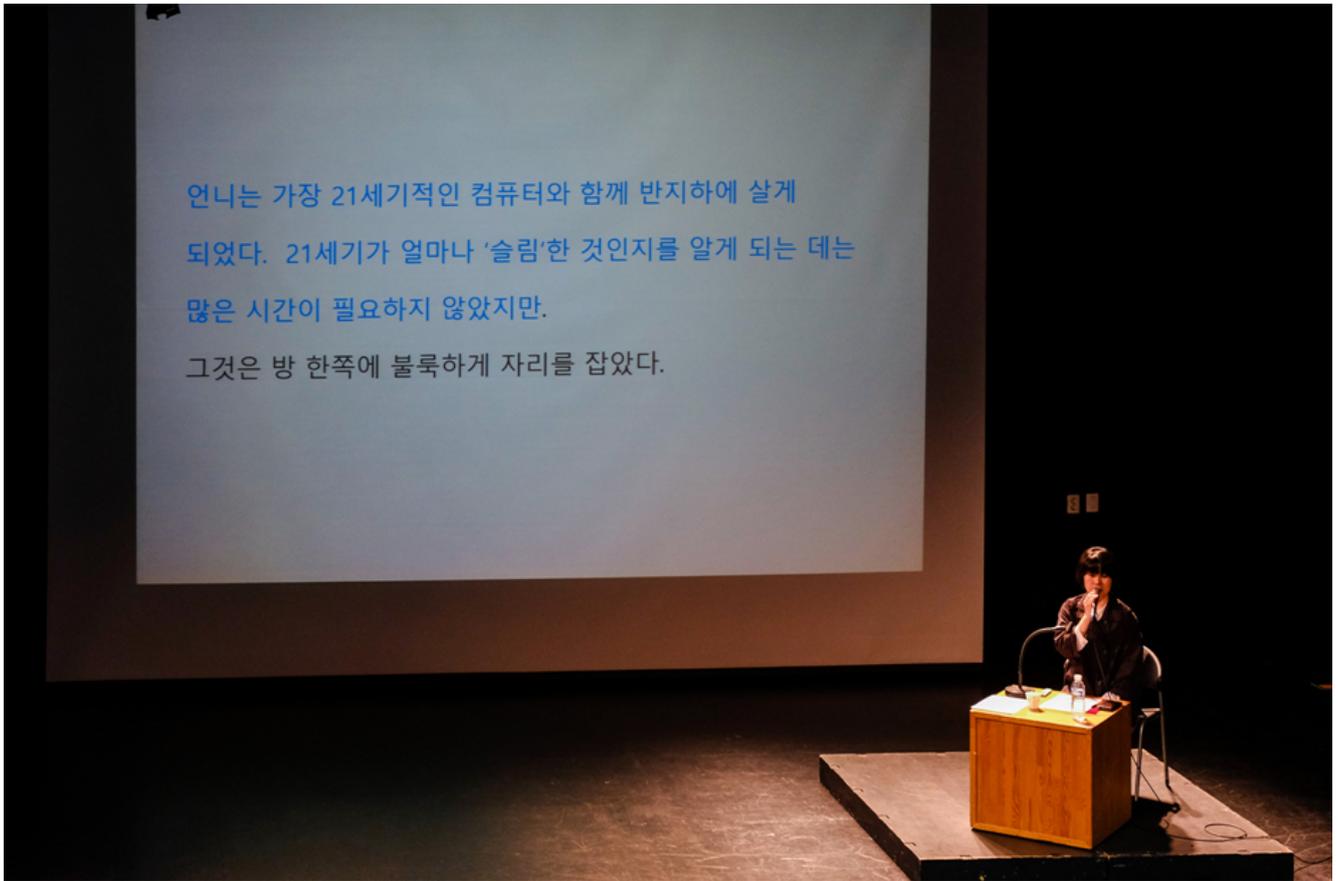
쪽에 보기 싫게 튀어나와, 작동 시 어마어마한  
돌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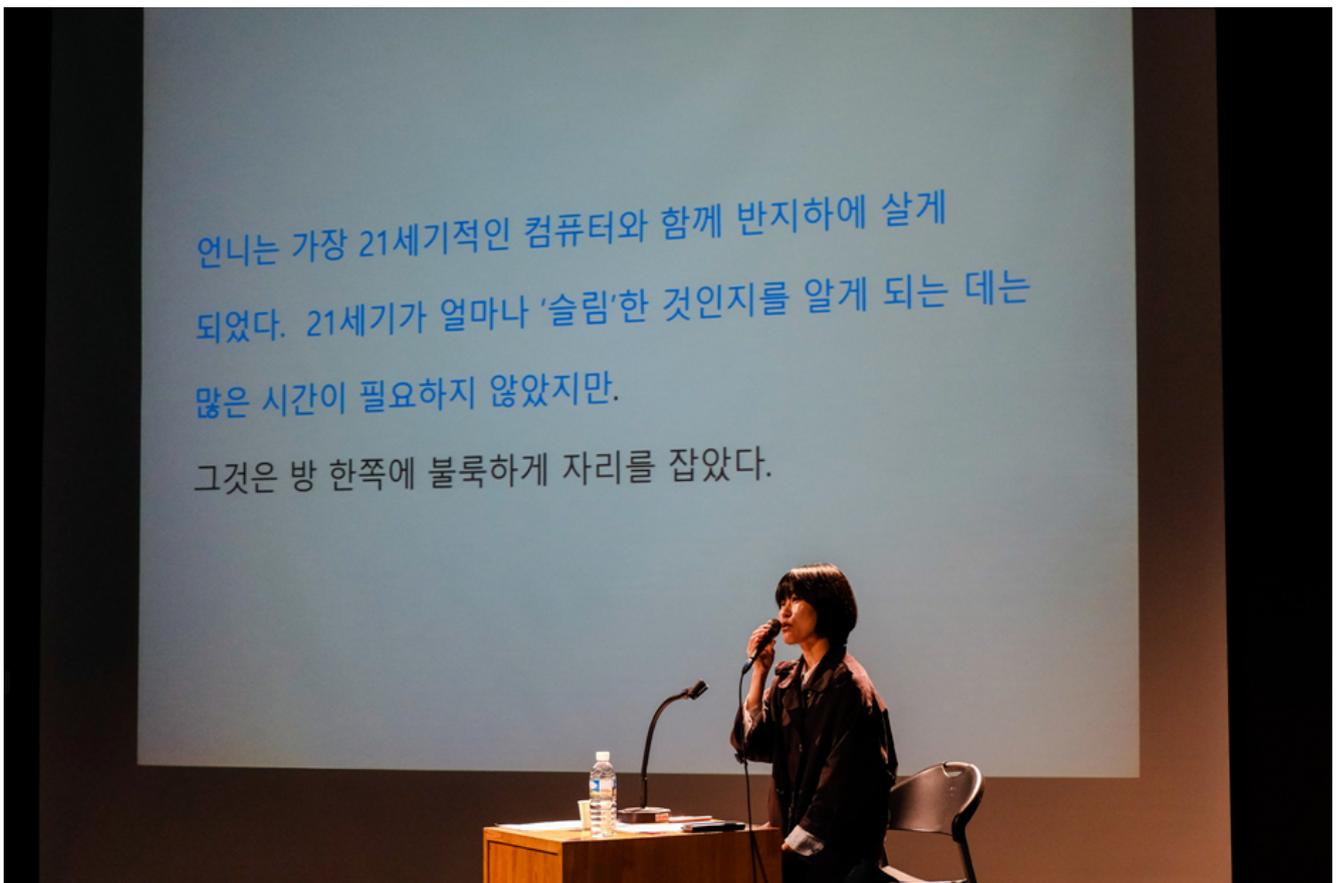




언니는 가장 21세기적인 컴퓨터와 함께 반지하에 살게  
되었다. 21세기가 얼마나 '슬림'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방 한쪽에 불룩하게 자리를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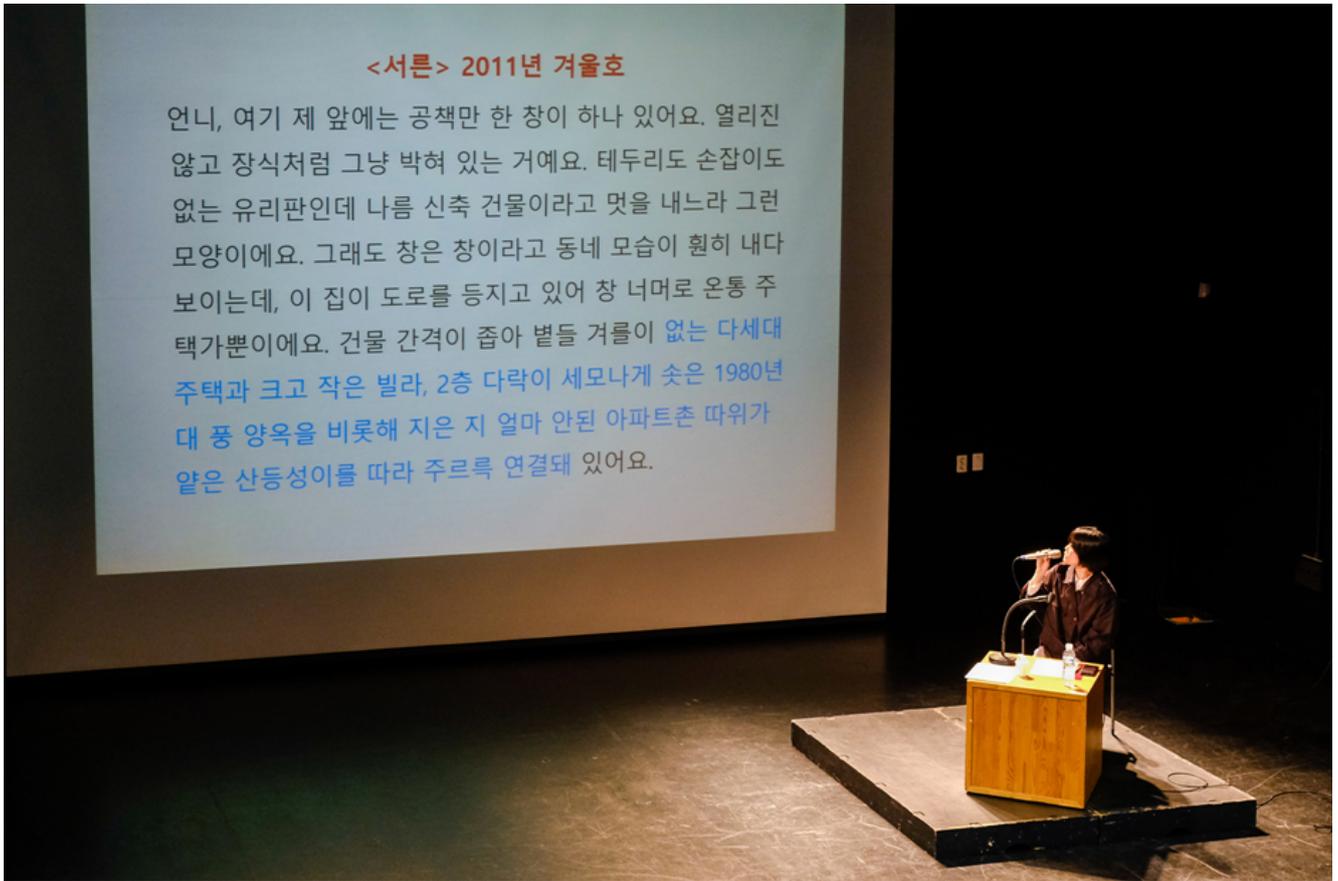
언니는 가장 21세기적인 컴퓨터와 함께 반지하에 살게  
되었다. 21세기가 얼마나 '슬림'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방 한쪽에 불룩하게 자리를 잡았다.











## <입동> 2014년 겨울호

이사 후 몇 달 동안 우리 집에서는 페인트와 접착제, 광택제 냄새가 끊이지 않았다. '북유럽 스타일 가구' 또는 '스칸디나비아 패브릭'을 알아보다 가격을 보고 낙심한 아내가 나를 택한 자구책이었다. 아내에게는 정작의 사실뿐 아니라 실감이 필요한 듯했다. 쓸모와 필요로만 이뤄진 공간은 이제 물렸다는 듯, 못생긴 물건들과 사는 건 지쳤다는 듯. 아내는 물건에서 기능을 뺀 나머지를, 삶에서 생활을 뺀 나머지를 갖고 싶어 했다.

